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3월 7일(금)

(윤력 2월 8일)

Пятница

7 марта 2025 г.

№ 9 (1212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С праздником 8 Марта!

▲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모든 여성들이 다시금 3월의 꽃처럼 피어나길...'

(사진: 이에식 기자)

### 단신

#### 세계 여성의 날 맞아

3월 6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문학적 음악회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음악회에 '전 러시아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들이 초대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 명절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었고, 축하 속에 밝은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었으며, 주의 합창과 시 낭송이 따듯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3월 7일에는 주 민속창작센터에서 사할린주 방위군 직원들을 위한 세계 여성의날 축하행사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박람회와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고 미술전시장들에서는 다양한 활동교실이 펼쳐진다.

3월 8일 오후 2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문화휴식공원에서 "봄, 꽃 및 찬사의 말"이란 대공연이 열릴 가운데 재능 보컬리스트들이 출연한다. 이날 모든 여성들은 봄 상징 노란색의 미모사꽃을 받을 것이라고 주최측에서 전했다.

###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축하인사를 받아주십시오!

찬란한 이 명절은 남성들이 여성적인 모습으로 연상하는 사랑과 운유함과 영감 등 가장 고귀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여성은 삶에 에너지를 주며,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의 친지들, 온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 일을 성취해냅니다. 이에 우리 사할린 지역에서는 모자보건 지원에 크나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젊은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사할린 지역에서는 2025년을 '행복한 모성의 해'로 선포하고, 이와 관련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할린주 여성 주민이 아이를 돌보며,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과 예술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사할린주 정부의 최우선적 업무 방향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으로 당신들 - 우리의 아내와 딸들과 여자친구와 여성 동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부터 따듯한 마음과 관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모든 여성분들에게 축제의 기분과 강건함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Уважаемые жительниц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имите искренни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женским днем! Этот светлый весенний праздник олицетворяет все самое лучшее, что мы, мужчины, связываем с образом женщины - любовь, нежность и вдохновение.

В каждой из вас сочетается сила и мягкость, красота и мудрость. Вы даете нам энергию и сами добиваетесь успехов для себя, для своих близких, для всей страны.

Женщина обладает даром давать жизнь. Воспитание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 радость и огромный труд. Поэтому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поддержке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Мы выплачиваем пособия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помогаем молодым семьям. 2025 год объявлен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Годом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Начинает действов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программа. Очень важно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чтобы жительницы области могли заниматься детьми и при этом полностью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в профессии и творчестве.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это будет приоритет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бо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рогие женщины! Мы всей душой любим вас, наших жен, матерей, дочерей, сестер, подруг, коллег. Пусть каждый день приносит вам душевное тепло и внимание со стороны самых близких людей.

Желаю всем женщина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частья, празднич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добра и благополучия!

В.И.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사할린주 국제 '승리의 릴레이'에 동참

대조국전쟁 승전 80주년 기념을 위해 <승리의 릴레이>에 사할린주가 동참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국제 군사-애국활동의 상징인 국경수비 기둥을 전달하는 전달식에 참석했다. 릴레이는 9개의 CIS국가 외부 국경을 따라 두 개의 경로로 진행되는데 남부에서는 브레스트 요새에서 시작해 북부로 이어지고, 북부 경로는 2월 2일 무르만스크에서 시작되었다. 이 행사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의 주도로 진행되며, 그 목적은 대조국전쟁 당시 나치-파시스트 침략자들과 처음 맞서게 된 국경수비대의 공적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승리의 릴레이의 주요 목적은 CIS 국가 국민들과 다져온 역사적 우정과 단결을 강화하고, 파시즘에 맞선 우리나라 영웅적 전투에 대한 기억을 보존

하는 데 있다. 군사-애국활동 기념의 일환으로 행사 참가자들은 승리광장의 기념비에 헌화했다.

릴레이의 상징은 캄차트카 변경에서 사할린에 도착했다. 국경수비 기둥 릴레이 전달은 앞서 아르한겔스크, 나리안-마르, 사벳타, 살레하르트, 두진카, 아나디리, 제물랴 프란츠-요시프 군도를 통과했다. 사할린 지역에서 릴레이 상징은 네벨스크, 흠스크, 포로나이스크 코르사코브, 스미르니흐, 오조르스크에 마을, 골로브니노 마을, 소쿠릴열도의 쉬코탄, 젤료니, 탄필레와를 통과한다.

다음 '승리의 릴레이'의 경로는 연해주 지역이 되며, 이 행사는 5월 28일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의 날 모스크바에서 종료된다. 릴레이의 총 거리는 6만 5천km가 넘는다.

### '사할린의 날개' 인노폴리스대학교 공동으로 드론 생산 시작

'사할린의 날개' 실용과학센터와 사할린주 국립대학이 타타르스탄의 혁신적 대학인 인노폴리스대학교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협력에 대한 문서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실무회의에서 양 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했다.

인노폴리스대학교는 사할린에서 몇 가지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할린의 날개' 실용과학센터와 공

동으로 인노폴리스대학교는 '인노브톨(InnoVtol) 자체 무인기 생산 및 유지 관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형 무인기는 2024년 여름에 사할린 지역에서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드론은 항공우편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의 의료기관 사이를 오가며 생체재료들을 운반했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주민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에 나서는 실라쵸와 알료나

필자는 오래 전부터 실라쵸와 알료나(본명 박 알료나 춘시코브나)를 '전러시아 인민 전선' 사할린주 집행위원회 지도자로서 인터뷰를 하고자 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드디어 약속을 잡고, 여성의 날 앞두고 만나게 되었다.

40대 초반의 알료나 실라쵸와는 '리고'서비스컴퍼니 사장이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주택단지 관리회사다. '리고 디자인'건설회사가 공사한 여러 주택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알료나 실라쵸와의 본업이다.

2023년 9월부터 '전러시아 인민 전선' 사할린주 집행위원회 부대표로 활약했으나 사할린주 정부의 추천으로 인민전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4년 1월에 알료나를 집행위원회 지도자로 승인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직장이다. 관리회사 설립자들은 알료나의 다른 활동이 본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의 사회 활동, 봉사 활동 등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료나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녀에게는 이 두 직책 외에 다른 일도 많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회협의회 위원장, 사할린주사회원 주택공공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며, 사할린주 상공회의소에서 주택관리 관련 활동을 맡고 있다. 그리고 주택공공관리 문제는 모든 주민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문제로서 이와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제가 이미 20여 년 주택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 문제 관련 법률전문가로서도 경험이 많다 보니



주택관리 분야 문제 해결책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떠나서 현재는 의료문제를 비롯해 여러 사회적 문제로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수 있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알료나 실라쵸와가 말하였다.

필요에 따라 그녀는 관리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인민전선 사할린 집행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인민전선 주요 사업 중 하나는 특수군사작전 전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할린 장애인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등 100여 톤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개인, 업체, 파트너, 사회단체 등 참가하고 있다. 그 외 자선기금을 통해 900백만 루블리를 모금하여 작전에 필요한 장비 구입하여 보내고 있다. 즉, 퀘드

바이크, 트랙형 전지형 차량, 진흙 타이어를 비롯해 다양한 장비 등이다.

물론 인민전선에서 특수군사작전 참전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도 자주 만남을 갖고 이들의 문제를 들어주며 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고 있다.

작년에는 대통령선거에서 푸틴 후보자의 위임자로서, 사할린책임자로서 바빠서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 기획들과 행사, 그리고 평일 업무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직접 추진하는 기획도 있어서 정말 숨쉬기 어렵다고 한다. 일정은 매일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어 거의 '일에 파묻혀 있다'는 표현이 그녀에게 맞는 것 같다. 다행히 20세의 외동딸이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의 지지 속에 좀더 편히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많이 이해해 주는 가족의 지원으로 알료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며칠 전에 그녀는 전 러시아 인민전선 총본부가 개최한 회의에 다녀왔다.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략적 회의를 가졌다. 단합과 사업 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연수도 하고, 발전을 위한 특강도 들었다.

이 회의에서 돌아오고 나서 다음 날 바로 홈스크 출장 떠났다. '주지사의 통제'란 새로운 기획으로 주지사가 얼마 전에 홈스크 출장 시 내려온 지시를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이에 사회단체 대표로 인민전선에서 나섰고, 정부 관련부서 대표들이 참석했다. 엇그저께 이 방문 결과를 직접 주지사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사실 그는 주택공공관리 분야 노인자원봉사자 담당도 맡고 있다.

그녀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어릴 때 (12세) 어머니를 여윈 알료나는 아버지와 두 오빠와 남았는데 아버지도 장애자로 판명되었고 자신과 가족을 여릴 때부터 챙기었던 알료나에게 책임감은 당연한 것이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고, 세상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었죠. 그리고 제 아버지는 매우 병이 심해져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아마도 이것이 나 자신, 내 성격,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지금의 나 자신에 어떤 각인을 남겼을 것입니다."라고 알료나가 고백했다.

엄마의 파스한 손길이 모자라고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청소년 시절에 극복하는 법, 이겨내는 법을 배워서 직장 일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대한 의욕, 교육에 대한 욕심, 성장에 대한 욕망이 생긴 것 같기도 한다.

"저는 관계에서 신뢰, 존중, 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가족과 관련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과 관련해서 이것을 중시합니다."라고 알료나가 말했다.

그녀는 선물보다 사람을 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물론 여자로서 장미꽃을 받을 때 기분이 스스로 좋아진다 한다.

시간이 생길 때는 주로 상점을 찾아 식품을 비롯해 생활용품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사실 남편과 딸 곁에 있을 때는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고 독서를 즐긴다. 요리를 좀 하지만 요리 즐겨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웃으면서 했다. 그리고 사실 요리할 시간도 별로 없다고 한다. 집에서는 아마 모든 사할린 동포처럼 한식도 하고, 러시아 요리, 다른 민족 요리 - 믹스 요리를 많이 즐긴다. 단, 한식의 사할린 반찬은 빠질 수 없다고 한다.

그녀의 답변들에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고 '여성의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것이다'란 생각을 표명했다.

그가 현재 좋아하는 말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을 스스로 만듭니다.'란 표현이다. 그녀에게 맞는 말 같다. 그녀는 스스로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임산부와 어머니들을 위한 축제 개최

지난 주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임산부와 신생아의 어머니들을 위한 <마마페스트(엄마축제)>가 개최된 가운데 임산부와 신생아의 어머니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며, 활동교실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이 축제는 '청년과 자녀', '가족' 국가기획의 일환, 기관의 지원으로 조성되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코르사코브, 아나와, 돌린스크에서 약 100명의 미래의 어머니들이 '마야크(등대)아트센터'에 모였다.

이러한 만남은 여성들이 서로 알고 지내며, 소통할 뿐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 귀중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활동교실에 참여하여 선물도 받을 수 있어 유익하다.

축제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의사인 안드레이 구르쥬는 출산 후 채취할 수 있는 여성의 생물학적 물질의 기증과 보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2025년 <마마페스트> 기획은 왈레리 리마렌코가 발표한 '행복한 모성의 해'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기획 추진의 목적은 임신의 계획에서부터 자녀를 낳아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기까지 그 시기의 여성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축제인 임신한 여성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축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렸다

Na прошедших выходны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МамаФест»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и мам новорожденных, где они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полез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общаться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ял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и

«Семья». Около 100 будущих мам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Анивы и Долинска собрались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Такие встречи полезны тем, что женщины 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и пообщаться, но и получить ценные знания от экспертов,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и получить подарки.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акушер-гинеколог Андрей Гуржий прочитал лекцию о сохранении и донорстве биолог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женщины, которые можно взять после родов.

Проект «МамаФест» в 2025 году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Года счастливого материнства, объявле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Цель инициативы — оказать женщинам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в период от планирования беременности до устройства ребенка в детский сад или школу.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위대한 승리의 디지털 역사기록 공동저자로 초대

위대한 승리 80주년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정보정책부가 독특한 기획인 <최전선의 기억 속에서> 텔레그램 채널을 시작한다. 이 기획은 대조국전쟁의 참전용사와 전쟁의 아이들, 후방전선 노동자들과 가족 중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공유할 준비가 된 참전용사 가족들의 기억을 보존하는 디지털 연대기라고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가 전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고문서 자료들을 포함해 소비에트 전쟁 시절의 분위기를 전달할 미디어 파일, 음성녹음, 수집된 영상, 전쟁 시절의 친숙한 멜로디로 채워져 있다. <최전선의 기억 속> 텔레그램 채널이 2025년 내내 운영되는 가운데 사할린주 전체 및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9월 3일에 기념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일본 군국주의로부터의 승리 80주년 기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 연령대의 시민들은 대조국전쟁 사건에 운명이 얽혀 사할린에 살았던 친지들, 위대한 승리 및 전후 지역 복구에 기여한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다.

메일 주소는 press@yuzhno-sakh.ru로 사진들을 비롯해 전선으로 보낸 편지 스캔본, 참전자의 증언 및 대조국전쟁 사건의 증언 녹음 등 다른 많은 미디어 파일을 접수하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레온티 이올레위츠 브라슬랍스키에 대한 것으로 그는 참전용사이자 유즈노사할린스크 명예시민이며, 대조국전쟁2급 훈장 수훈, '독일에 대한 승리', '일본에 대한 승리'의 메달을 비롯해 다른 상들을 받았다.

우리 영웅들의 역사의 중요했던 순간과 그 공적에 대한 기억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알아볼 수 있다.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глашают стать соавторами цифровой летописи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В год 80-лет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департамен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пускает уникальный проект: Telegram-канал «На передовой памяти», который станет цифровой летописью, хранящей воспомин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детей войны, тружеников тыла, а такж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етеранов, готовых поделиться удивительными историями судеб своих уже ушедших из жизни родны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мимо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Telegram-канал наполнят медиафайлами, которые перенесут в атмосферу советских военных лет: аудиозаписями, видеоподборками, знакомыми мелодиями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8면에 계속)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하여

조성용 화백, 그림으로 마음과 운명을 표현

지난 3월 2일(일) 새고려 신문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하여' 기획의 일환으로 잘 알려진 조성용 사할린동포 화백과 만남이 이뤄졌다.

이번 만남은 체호브 책 '사할린섬' 사할린주 문학미술박물관의 협력으로 개최된 만남의 장소는 조성용 화백의 '두 천년의 경계에서' 개인 전시회가 열린 '소브레멘니크' 전시관이었다.

이날 만남에 조 화백의 삶과 창작에 관심을 가진 10대를 비롯해 70대-80대까지 약 6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만남을 연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대표는 조성용 화백의 미술적 재능은 가장 먼저 그의 부모가 발견했다고 했다. 5살 때 그가 그린 말에서 이미 알아챘다고 한다. 미술가의 길을 택한 조 화백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피오네르

회관에서 첫 미술수업을 받았고, 후에 이르쿠츠크예술전문학교, 극동국립예술대학(블라디보스토크)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이날 조성용 화백은 이르쿠츠크예술전문학교에서 공부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그가 중학교 9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거기에 입학했는데 그 당시는 살기가 힘든 어려운 시기였고, 탈론(배급) 시스템이었던 시기였다. 그래도 재미있는 학창시절이었고, 많은 친구가 생기고, 음악에 대한 관심도 생겨 기타도 처음으로 익혀 지금도 기타를 치고 있다고 한다. 음악은 항상 그의 삶에 있다. 그는 차안에서도 음악을 듣고, 그림 그릴 때도 분위기에 맞춰 음악을 듣는다.

조 화백은 풍경화, 초상화, 선화 등 여러 종류의 그림을 그리지만 그중에서 초상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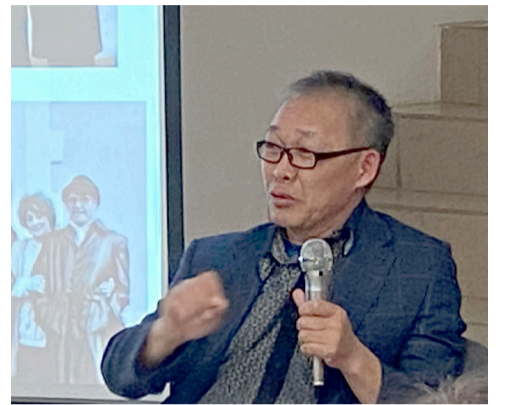
더 가깝게 느껴진다며 일부 초상화들을 그린 계기도 이야기했다.

35년 전에 사할린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한 조성용 화백은 그 동안 사할린을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 연해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전시하고, 그의 작품 일부는 사할린주미술박물관, 블라디보스토크미술관, 한국 안산 미술관 등, 그리고 미국,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개인 수집품으로 소장되어 있다.

그는 세계 22개국을 여행했고, 러시아 여행도 많이 했다. 발바다에 아프도록 여행을 돌아다니는 결과 물론 작품들도 많이 탄생했다. 그의 그림에서는 표현하려는 인상이 쉽게 느껴진다. 그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는 쉬코탄 섬이다. 이 쿠릴섬을 그는 여



러 번 다녀갔고 그에 대한 작품들도 많다. 님프 소수민족 관련 시리즈도 눈에 띈다. 그는 말한다. 때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 계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일단은 팔레트에 물감을 짜내고, 붓을 잡는 것이다. 그러면 그려진다. 막힌 숨이 트인다



는 뜻이다."라고. 그는 체스를 하든, 탁구를 하든, 학생들을 가르치든, 그림을 그리는 최선을 다 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한다. 재능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일 것이다.

이날 조성용 화백은 농담도 많이 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질문에 답변하였다. 단순한 질문도 있었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미술가의 운명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끝으로 관람객들은 만남의 주인공의 안내로 전시회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였다. 무엇보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했고, 많은 애호가들이 조성용 화백에게 따뜻한 애정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본사 기자) (이에서 기자 촬영)

<파동을 일으켜라. 사할린>포어사이트-세션 개최

3월 4일(화) <러시아 프로예두(러시아 음식에 대해)> 기획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포어사이트(foresight)-세션 <파동을 일으켜라. 사할린>(+16)이 개최되었다. 포어사이트는 혁신을 촉진하고, 전략적 평가를 수행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포어사이트-세션은 추세를 식별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며, 구체적 행동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미래계획방법이다.

이 세션은 사할린주 정부와 연방전략주도청이 주최했다.

대규모 행사에 전국 여러 지역들에서 미식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가들과 셰프-요리사, 요식업체 운영자, 마케팅 홍보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전국적, 국제적 수준의 기획 조성에 경험이 있는 강사들이 사할린의 기업 및 지역 정부기관의 대표들과 지식을 공유했다.

포어사이트-세션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특별행사로서 미식일정 구성 및 '사할린 - 품질인증' 브랜드 진출, 레스토랑 경영의 질적 향상과 호텔경영 분야를 위해 자격을 갖춘 인력 양성에 따른 기획들을 개발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기획 발표에 참석한 가운데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관광객 매력에 있는 지역이다. 매해 사할린 지역을 찾는 여행객의 흐름이 증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 지역들에서 25만 명의 여행객들이 다녀갔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호텔과 레스토랑 개업에 따른 사업을 촉진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관광객 제반시설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관광객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주민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생활 및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편안한 생활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위해 관광 분야를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략주도청의 '도시경제'부 부장 겸 부청장인 올가 자하로와는 사할린주는 관광 제반시설 개발과 레스토랑 운영자, 호텔리어, 호텔경영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 향상에 따른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매해 여행객의 흐름이 증가하고 있는 게 확연히 눈에 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는 산악스키단지, 온천, 미네랄 생수, 범고래, 수많은 자연적 명소들, 가장 신선한 해산물들이 있는 사계절 휴양소이다. 심지어 이번 세션에 참가한 셰프-요리사들은 사할린에 환상적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요리재료들이 있음에 놀랐다. 앞으로 여행객들은 사할린만의 요리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 열띤

토론을 했다. 여기 이 자리에 대단히 야심찬 기업가들이 모였다. 그들은 사할린과 쿠릴열도가 멀리 그들의 경계를 넘어 전 러시아적 수준과 국제적인 수준으로 추진해갈 많은 기획들을 고안해냈다."고 덧붙였다.

세션의 참가자들은 일 년 내내 미식행사들을 개최할 길 제안했다. 예를 들면 '고르니 워즈두흐'에서 대형 야유회를 진행하고, 김치축제를 여는 것이다. 사할린 레스토랑 운영자인 마리아 페도토와는 유럽식, 영국식 아침 식사처럼 잘 알려진 사할린의 아침식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사할린 - 품질인증' 지역 브랜드 추진의 일환으로 요식업체들을 위한 <사할린의 메뉴> 개발과 고객의 관광 코스에 우수 요식업체들을 포함시키고, '스위우 로드노예(우리의 것)'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핵심기획 중 하나는 '가스트로오스트로와(사할린의 미식)' 기획으로 이는 독특한 사할린 지역의 요리 코드를 세계에 공개하는 국제 포럼이다. 이 포럼은 사업, 미식 저녁식사, 축제, 활동교실, 집중교육과정 등 다양한 형태들을 통합한다.

참가자들은 사할린의 처음(A)부터 끝(Z)까지 여행객들이 최고의 수준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컨시어지-서비스(컨시어지(Concierge):고객을 맞이해 객실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람) 기획을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에게 레스토랑 테이블 예약부터 낚시여행까지 모든 문제해결에 개별적으로 고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력 문제도 간과하지 않은 가운데 이에 대해 학생들의 직업진로를 계획하는 '최고의 지역 인재' 모델을 추진하고, 끊임없는 자질향상과 호텔경영 분야에 직업이미지 개선을 주장했다.

교육체계에 전체적 변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등 및 보충 직업교육을 위한 접근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교육의 초점을 실무에 집중하여 대학생들의 일부 수업은 직접 요식업체에서 진행하고, 강의와 주요 직업교육은 요식업체의 운영자가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포어사이트-세션 참가자들의 기획 발표는 그 실현을 향한 문을 열었다.

사할린주는 미식산업 개발에 따른 전략주도청 프로그램의 첫 시범지역이 되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와 전략주도청의 스펀트나 추프세와 청장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사할린주 입장에서는 미식이 지역 사회-경제적 발전의 중요한 도구가 될 대규모 기획을 좀더 편하게 개최하게 되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디지털루블리 도입

2025년 7월 1일부터 디지털루블리 유통이 시작된다. 이 새로운 화폐는 필수적으로 예산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며, 국민들에게는 디지털화폐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화폐개혁이 러시아 국민의 생활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 '아규멘트 이 팩트(논란과 사실)'언론이 상세히 전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루블리를 러시아의 세 번째 형태의 국가통화라고 불렀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향후 대규모 도입되는 모든 디지털루블리는 디지털 흔적을 따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예산체계가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면 디지털루블리를 빼돌리거나 오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디지털화폐는 화폐의 디지털 경로가 추적될 수 있는 덕에 러시아 국민의 저축금 보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덕분에 디지털루블리의 모든 움직임은 흔적을 남기고, 국가가 예산지출을 감독하게 하며, 명목적 용도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학교 건축에 배정된 자금이 있는지, 그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하반기에는 러시아 몇몇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기존의 루블리가 아닌 디지털루블리로 전환해 근로임금 지급을 시작할 수도 있다.

러시아에서는 2024년 8월부터 디지털루블리 도입에 따른 대규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는 현금이나 은행 신용카드의 현금처럼 합법적인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서 현재 실험적으로 9천여 명의 사람들과 수십 개의 은행과 수백 개의 상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할린의 날개' 인노폴리스대학과 공동으로 드론 생산 시작

(1편의 계속)

사할린 국립대와 인노폴리스대학은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인노폴리스대학은 '무인항공기시스템' 국가기획의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위한 인력' 연방기획의 주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중 하나이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자금의 지원으로 무인기 조종사를 무료로 교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노폴리스대학은 사할린국립대학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하고, 사할린 국립대학과 '사할린의 날개'실용과학센터의 지원으로 사할린 지역 생산기업들에 혁신기술의 해결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 대학의 전문가들이 러시아에서 유일하게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용접 이음새의 기술적 조절기능을 개발한 가운데 대학 측은 기업과 로봇공학에 이 기술을 도입하길 제안한다. 또한 인노폴리스대학은 자체 개발한 해결책으로 사할린에서 의료적 촬영법의 실험적 알고리즘과 정보보안 및 제반 시설의 보안 분야에서 시험해보길 권했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Герой России Сергей Ревин получ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орден своего прадеда

Дмитрий Шин (г. Москва)



1 марта в посоль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ась традиционная памятная церемония, посвящённая 106-й годовщин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ю.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й Кореи во главе с чрезвычайным и полномочным послом Кореи Ли До Хун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том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други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После исполн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им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частники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почтили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память участников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Центральным событием памятной церемонии стало вручение ордена Южной Кореи «Осно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потомкам геро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командира корейского партизанского отряда, участника антияпонск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имофея Васильевича Хван Хаира (1895-1967).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посол Южной Кореи Ли До Хун вручил высокую награду внучке Хван Хаира, москвичке Дженете Хан. Сред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героя присутствовал правнук Хван Хаира, лётчик-космонавт, Геро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й Ревин, который от имен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ыступил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Уважаемые гости, друзья! От нашей семьи выражаю слова глубокой благодарности сотрудника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ые создали замечательный список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Мы также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им Елену Хван и Дмитрия Шина за их инициативу и энтузиазм в работе с архивами и с изданием книг, посвящённых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ыражаем такж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посольств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ослу г-ну Ли До Хуну.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вашу поддержку и организацию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с Днём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вспоминаю слова своего прадеда Тимофея Васильевича Хван Хаира,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девизом нашей семьи: «Вперёд, только вперёд, без страха и сомнения!» Спасибо».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давно интересуется историей своей семьи. В 2016 году он приезжал в Приморье, чтобы посетить те места, где родился его знаменитый прадед. В сентябре 2024 года он побывал на родине Хванов — на месте бывшего корей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Таудеми Партизан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где впервые посетил могилу своего прапрадеда Александра Хвана (1853-1920).

(Сайт Корё сарам.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 ХВАН ХАИР ТИМОФЕЙ ВАСИЛЬЕВИЧ (1895-1967)

Родился в д. Таудеми Ольгинского уезда в крестьянской семье. В 1916 г. мобилизован в царскую армию. В 1918 г. в боях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командовал ротой, потом батальоном. Учился на курсах красных командиров. После курсов направлен на должность командира полка в 3-ю регулярную Армию, дислоцировавшуюся в Перми. Для борьбы с японскими интервентами был командирован в Приморье. В конце 1919 г. — командир партизанского отряда численностью в 400 человек в Имано-Вакской долине. Отряд совершал налёты на войсковые контингенты противника, разрушал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мосты на Иманской ветке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Его отряд прошёл с боями около 1,5 тыс километров. В 1920 г. —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2-го Иманского полка 5-ой Армии. В конце мая 1921 г. в Иркутске был сформирован новый состав 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револю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Хван Хаир был назначен командиром 3-го Корейского полка 5-й Армии. Демобилизовался из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1924 г., работал на ответственных партийных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постах. В 1937 г. подвергся депортации в Казахстан. Полностью реабилитирован. За участие 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награжден СССР орденом «Бое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1967 г.) Умер и похоронен в Казахстан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 «Встреча с художником»: знакомый незнакомец Дё Сон Ен

2 мар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ниги А.П.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с именитым сахалинским художником Дё Сон Еном. Она состоялась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СовременникЪ», где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проходит его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Как оказалось, организаторы давно договорились с героем, что эта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его юбилейной выставки.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Де Сон Ен отпраздновал юбилей, 65 лет, открытием персон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На границе двух тысячелетий». Эта выставка, как и монолог художника — размышления о времени, творчестве, о себе и о мире.

Мы привыкли, что Александр Енович всегда стильный, лёгкий и открытый в общении, слегка ироничный человек. Всегда с улыбкой рассказывающий какие-то забавные байки... И, хотя в глубине души каждый из нас понимает, что успех творческого человека — это талант, многократно помноженный на труд, всё же складыва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и в жизни, и в работе ему всё давалось легко. В 30 лет — член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золотая медаль Союза, затем членство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изобразительных искусств ЮНЕСКО, многократный лауреат и победитель различных конкурсов, выставки не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но и в Японии, Корее, Китае, да и работы его разлетелись по миру в музейные и частные коллекции. Казалось бы, чего ещё желать?!

Однако во время откровенного разговора, Дё Сон Ен открылся с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й стороны.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на встречу пришло порядка шестидесяти гостей, которые задавали самые разные вопросы: «А почему картины такие тёмные?»; «Не хотели бы вы стать маринистом?» и другие. Были и сложные вопросы о вере, жизненном предназначении, музыке...

От предложения смени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Александр Енович отказался, пошутил, что как у всякого уважающего себ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художника в его работах и так достаточно водной темы, а сам он больше любит писать портреты. «Кто, если не я их напишет?» — повторяет он несколько раз, обращаясь скорее к себе. Кстати,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 небезызвестный портрет друга-художника (Олег Подскачин) в солнечных очках, где отражается сам мастер. Такой автопортрет в портрете.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смогли увидеть также лицо прототипа на старой фотографии друзей-однокурсников Александра Еновича. Также художник поведал историю «портрета» весёлого розового поросёнка на стене за плечом друга-художника. Оказывается, автор думал, что друг родился в год Свиньи, а потом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тот «собака»! С грустью художник вспоминал безвременно ушедшего Евгения Бельжичского и покинувшего нас как раз 2 марта поэта Николая Антониновича Тарасова, чьи портреты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на выставке.

И в то же время групповой портрет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Джаз перформанс», вызывающе апельсиново-наглый и жизнеутверждающий, буквально заставляет притопывать ногой в такт мелодии, где ведёт саксофон. Мы плачем, но жизнь продолжается!

Художник признался, что музыка всегда присутствует в его жизни, звучит в машине, во время живописных экзерсисов (для каждой картины своя). Во время учёбы в Иркутске, тот самый друг-художник «подсадил» его на «Пинк-фloyd» и «Назарет». В общежитии, где жили студенты раз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Александр Енович научился играть на гитаре, и если что, то может и спеть. И картины его звучат, душа замирает и взлетает под музыку ветра и волн.

Дё Сон Ен вызывает уважение и восхищение.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с детства привык трудиться (более 30-ти лет отдал преподаванию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искусств, не так давно ушел на «заслуженный отдых»), и сегодня у него нет выходных. Иногда он позволяет себе съездить на рыбалку или в путешествие. Он посетил двадцать две страны мира.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поездок — в его картинах. Яркий и сочный «Рынок Намдедун», художник признался, что капуста на



полотне с Тондемуна! Сахарный и сладкий даже на вид арбуз, наверно куплен там же («Натюр-морт с арбузом»).

Сияющий огнями ночной порт и «Горы Кротон» — воспоминания о Хорватии. Последняя картина очень атмосферная. Лето-лето. Сияющая жемчужом гора в обрамлении зелени, кажется, если подойти ближе, пахнет нагретым солнцем ароматом смолы и пряно-медовых цветов.

Принято считать, что Дё Сон Ен — живописец-реалист, но дьявол кроется в деталях, как обычно. Его работы невероятны и фантастичны. Так «Шикотанская капуста» многоцветно клубящаяся на берегу, если присмотреться, ювелирно выписана кисточкой. Или «Поронайская икра», которая у норма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вызывает кроме чисто эстетического удовольствия ещё и обильное слюноотечение! Под внимательным взглядом заметно, что все икринки разные, а в хлебе выписаны все дырочки, и сам хлеб — зерновой, на скатерти виден выпуклый жаккардовый узор. И понимаешь какой это адский труд!

Вопрос о предназначении никогда не стоял перед Александром Еновичем: ещё в пять лет он для себя решил, что несомненно станет художником. И очень благодарен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в него поверили и поддержали. Поэтому в 16 лет он отправился учиться в далёкий холодный и голодный Иркутск («две пачки пельменей и пачка сливочного масла в месяц по талонам»).

Вообще, подкупает манера художника рассказывать о себе очень просто, он не жалуется, не хвастает, а констатирует. Так, в первом классе полгода пролежал в больнице и «съехал на тройки». Подумал и решил, что может учиться на «пяť». С русским — сложно, значит — надо больше заниматься. Кстати, и училище, и институт он закончил с отличием. Здоровье — не очень, значит каждое утро перед школой — пробежка и гимнастика. До сих пор благодарит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 училище и институте з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дания — однокурсники уходили, а он ещё полтора часа проводил за мольбертом. Объявили турнир по шахматам или теннису — «пришлось пойти и всех победить». Случались и неудачи, в которых он винит только себя. Он привык обо всём размышлять и анализировать.

Вся его жизнь — это путь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преодоления себя и поиск идеала.

Рецепт успеха от Дё Сон Ена прост: надо начать что-то делать «через не хочу», в его случае «выдавить краски на палитру и взять кисть», тогда непременно откроется «второе дыхание»!

И лучше один раз увидеть работы Александра Еновича, чем сто раз услышать или прочитать, составить собствен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ведь искусство это — чувственное восприятие.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 только живописные работы мастера, но и графика и инсталляции.

Наталья Кирюхина, непредсказуемая и многогранная в своём таланте, так сказала о Дё Сон Ене: «Чем бы Саша не занимался, он всегда узнаваем!» 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Александр Енович — самый узнаваемый художник и один из знаковых людей 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наших островов!

Ещё раз с юбилеем, Александр Енович! Мы Вас любим и ждём новых воплощений вашего таланта!

Елена БАЧИННА  
Фото ЛИ Е Сик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Из-за ошибки пилота пострадали 15 человек

Ошибка пилота стала причиной случайной бомбардировки в ходе учений жилого района в городе Пхо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острадали 15 человек. Повреждены пять домов, церковь, виниловая теплица и грузовик,- сообщили 6 марта в штабе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РК.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два истребителя KF-16 по ошибке сбросили восемь авиабомб МК-82 класса «воздух-поверхность» за пределами учебного полигон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казало, что один из пилотов ввёл ошибочные координаты цели бомбового удара. Все учения с боевой стрельбой приостановлены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не будет выявлена точная причина трагическ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В 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йска,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более 160 единиц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включая танки и истребители.

## В условиях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раскола важно национальное единство

Национальное единств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в условиях идеологического 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аскол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Чхве Сан Мок, выступая на церемонии, посвящённой 106-й годовщине Первоапрель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Он отметил наличие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поколенческ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классовых разногласий, предупредив, что будущее нации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под угрозой, если такие проблемы не будут решены. «Чтобы преодолеть кризис, с которы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и построить нацию, которой сможем гордиться в будущем поколе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е единство важнее, чем когда-либо», - подчеркнул Чхве Сан Мок. Коснувшись ситуации в экономике, он отметил, что во всём мире усиливаются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риски, 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 торговая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ь растёт. Он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устойчивости», которая может быть достигнута посредством реформ в различных секторах, а также политик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 РК буде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НАТО в сфере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РК буде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договора (НАТО) в качестве страны-партнёра в сфере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в рамках партнёрства РК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вмест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и разработках с другими членами альянса и планировать проекты в рамках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митета НАТО. РК становится третьей страной-партнёром альянса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после Японии и Австралии. Это партнёрство впервые закладывает основу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Европой в области оборонной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знаменуя собой важную веху в развит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К и НАТО,-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Минобороны. РК не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НАТО, но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четырёх партнёров альянса в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наряду с Австралией, Японией и Новой Зеландией.

## РК откроет центры туризма в странах Бенилюкса и Турции

В странах Бенилюкса (Бельгия, Нидерланды, Люксембург) и Турции будут открыты новые центры про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туризма. Как сообщили 26 февра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они будут открыты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Центры про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туризма начали создаваться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тех странах, где н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о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х активно посещают РК. В странах Бенилюкса, особенно в Нидерландах, существует устойчивый спрос на зарубежные путешествия, а Турция отличается высоким интересом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имеет крупнейший в мире транзитный аэропорт в Стамбул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центры про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туризма были открыты в 10 странах, включая Швецию и Бразилию.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из этих стран увеличилось на 22,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 Вся гора Пэктусан станет глобальным геопарком ЮНЕСКО

Часть горы Пэктусан, находящая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удет объявлена глобальным геопарком ЮНЕСКО.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совет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заседании, которое состоится со 2 по 17 апреля, рассмотри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6 объектов для объявления глобальными геопарками. Так называют отдельные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районы, где объекты и ландшаф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геолог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управляютс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целостной концепции защиты, образования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лобальным геопарком ЮНЕСКО объявлена китайская часть горы Пэктусан (по-китайски Чанбэйшань). Как отмечено в заключении экспертов ЮНЕСКО, геопарк горы Пэктусан отличается впечатляющим ландшафтом, образованным вулканическими извержениями, демонстрируя хорошо развитую ледниковую географию. Отмечено также, что гора считается потухшим вулканом с высоким потенциалом извержений в будущем. На предстоящей сессии глобальным геопарком будет признана также территория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на стыке провинций Чхунчхон-Пукто и Кёнсан-Пук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число глобальных геопарков ЮНЕСК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увеличится до семи. **РКИ**

##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Чолл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Южную Корею в борьбе за ОИ-2036

Сенсационно завершилась прошедшая в пятницу 28 февраля процедура отбора кандидата-региона от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государство в борьбе за право проводить Лет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2036 года. Весьма неожиданно, но уверенно победила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Чолла, которая обошла считавшуюся явным фаворитом столицу страны - Сеул. Жители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 назвали свою победу "чудом", но эксперты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главная борьба впереди.

### "Мы совершили чудо"

"Мы это сделали. Мы создали чудо", - за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Северной Чоллы Ким Гван Ён, когда были оглашены результаты голосования.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заявку провинции юго-запада страны поддержали 49 делегатов, тогда как Сеул - лишь 11 при одном недействительном бюллетене. Эксперты же считали, что столица - явный фаворит гонки.

Губернатор Ким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ешающую роль сыграла поддержка жителей провинции, а также выраз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ородам-партнерам, присоединившимся к его инициативе. "Настоящая гонка начинается сейчас, и мы отправляемся в путь к финальному этапу отбора. Если мы будем держаться вместе, то добьемся успеха", - добавил он.

Ранее обе стороны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заявки на суд экспертного комитета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Кореи: каждая сторона получила 45 минут на презентацию и 15 минут на сессию вопросов и ответов. Лично свою позицию представляли губернатор Ким и мэр Сеула О Се Хун.

### Сеул не убедил

Хотя Сеул уже принимал Летнюю Олимпиаду в 1988 году и рассчитывал стать седьмой страной, дважды организовывавшей Игры (в этом списке уже значатся США, Франция,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Австралия, Япония и Греция), его аргументы не убед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портивных федераций Кореи.

Сеульская заявка базировалась на развит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наличии готовых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опыте проведения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и близости к крупнейшему аэропорту страны - Инчхон. В пользу Сеула также говорили результаты соцопрос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более 85% жителей столицы поддерживали заявку города.

Тем не менее Северная Чолла сумела перевесить чашу весов в свою пользу, сделав ставку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вномер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за пределами мегаполиса.

"Сегодня 88,5% все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Южной Кореи проходят за пределами Сеул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Ким, сравнив ситуацию с Австралией,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ла Олимпиаду в трех разных городах (Мельбурн, Сидней, Брисбен) для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го роста страны.

План Северной Чоллы предполагает проведение соревнований не только в самой провинции, но и в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ах: легкая атлетика пройдет в Тэгу, стрельба из лука и плавание - в Кванджу, а теннис - в Хонсон.

### За главную победу придется побороться

Несмотря на триумф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отборе, Северной Чолле еще предстоит получить одобр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а также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и финансов. Лишь затем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Кореи сможет официаль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МОК).

Процесс выбора хозяина Олимпиады также претерпел изменения: теперь МОК не проводит традицион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среди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Вместо этого комиссия по будущим хозяевам Игр выбирает подходящих кандидатов и рекомендует их Исполкому МОК, который затем решает, с кем начинать "целевой диалог".

Среди конкурентов Южной Кореи за право пр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ады-2036 значатся Индонезия, Турция, Индия и Чили. О возможных заявках также заявляли Египет, Южная Африка, Катар,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Венгрия, Италия, Дания и Канада. Отметим,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уже дважды у себя проводила Олимпиаду - в 1988 году в Сеуле прошли Летние ОИ, а в 2018 г. в Пхенчхане - Зимние.

### Призраки прошлого

Победа Северной Чоллы вызывает у некоторых экспертов вопросы из-за недавнего скандала с проведением Всемирного слета скаутов в 2023 году. Тогда провинция подверглась жесткой критике за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й хаос: участникам не хватало условий для отдыха, не были обеспечены меры против жары, а некоторые делегации даже покинули мероприятие раньше срока. Теперь региону предстоит убедить МОК, что его олимпийский проек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еалистичен и отвечает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ранее рассматрив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местной заявки Сеула и Пхеньяна на Олимпиаду-2032, но тогда МОК отдал предпочтение Брисбену, который в итоге и выиграл право на проведение Иг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Сеул попросил Вашингтон о снисхождении по вопросу о введении торговых тарифов

28 февраля и.о.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вице-премьер и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Чхве Сан Мок провел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ю с министром финансов США Скоттом Бесентом. В ходе беседы Чхве попросил Вашингтон учесть вклад Сеула в американскую экономику, дав тем самым понять, что надеется на послабления на случай введения анонсированных США торговых тарифов. Это стало первой беседой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между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двух стран после вступления в должност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ереговоры длились около 30 минут и прошли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Чхве Сан Мок, находившийс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комплексе в Сеуле, и Бесент из Вашингтона обсудили ключевые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ключая введение новых тарифов США, инвести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американскую экономику и валютную политику.

Во время переговоров Чхве заявил: "Мы просим США учитывать вклад Южной Кореи в американскую экономику при принятии решений о торговых мерах, включая введение взаимных тарифов".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в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а также в сфере глоб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тается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м".

Сеул выразил особую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ведением США "взаимных тарифов" на продукц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отраслей, таких как автомобил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и фармацевтика. Бесент в ответ разъяснил,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Трампа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нижения или отмены пошлин для стран, готовых к переговорам с Вашингтоном.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Чхве также попытался успоко

ить американского чиновника в отношении перспектив Южной Кореи в связи с переживаемым непростым периодом внутри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И.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отмети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демонстрирует высокую устойчив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недавн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отрясения, включая импичмент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Он привел в пример недавнее решение Fitch Ratings, подтвердившее кредитный рейтинг Южной Кореи на уровне AA- со стабильным прогнозом, что, по мнению Чхве, стало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довер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к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Бесент,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к дальнейш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отметил, что США ценят проч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 рассчитывают на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диалог по вопросам торговли и инвестиций.

Отметим, что в Сеуле, где больше желали бы победы демократов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США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 большими опасениями ожидают действи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Южная Корея опасается, что нов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серьезно повысит тарифы на ту продукцию, где у РК в торговле с США наблюд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ое торговое сальдо. Кроме того, существуют опасения и в отношении политики Вашингтона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Тут корейцы ожидают требований к ним со стороны Америки повысить расходы на содержание военного континента США, а также инициатив Белого Дома по части диалога с Ким Чен Ыном. В последнем случае РК опасается, что она окажется вне важного для ее интересов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результаты которого неизбежно повлияют на обстановку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НПЦ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совместно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ннополис запускает производство беспилотников

НПЦ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и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инновационным вузом Татарстана -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ннополис. Документы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были подписаны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рганизаций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Университет Иннополис готови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несколько инициатив. Совместно с НПЦ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вуз планирует запус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сервис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собственных беспилотников InnoVtol. БПЛА самолетного типа успешно прошел испытания в регионе летом 2024 года. Дрон использовался в качестве авиапочты - совершал полеты между медицин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и перевозил биоматериалы. Сегодня 4 таких беспилотника используются сахалинским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 центром.

— Беспилотники InnoVtol на протяжении шести лет дорабатывала команда нашего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го бюро под российские реалии - ветер, разницу температур и прочие условия. Вс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собственность находится у нас,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ы модернизировали наш продукт и готовы его тиражировать быстро. В том числе обсуждаем с командой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дальнейшую локализац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Отдельный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мы прорабатываем, - это внедрение нашего программного продукта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и оснащении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нашего дрона мы сможем говорить не только про транспортировку грузов, но и про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сервисов мониторинга и выявления нарушений. Также нам хотелось бы расширить здесь техническую команду, которая сможет оказывать сервисные услуги,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нополис Искандер Барие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егион поддерживает развитие инноваций и готов стать площадкой для отработки новых проектов.

— Самое ценное в беспилотниках - это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ая полезность. Ес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мониторинга дрон выявляет пожары, мы получаем меньший ущерб для лесов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ов -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Это колоссальная экономия и забота об экологии. У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есть план в 2025 году налетать 4,7 тысячи часов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для решения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задач. Приглашаем вас к участию. Вы получите возможность наработать опыт и при нашей поддержке создать технологии, которых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т. К примеру, как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ыявлять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е свалки или как следить за состоянием дорог,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ГУ Университет Иннополис намерен создава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Вуз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ведущих провайдеров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адры для БАС»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еспилотные ави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Это позволит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бесплатно обучать операторов беспилотников. Также инновационный вуз готов усилить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Сахалина подготовку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ГУ и НПЦ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Университет Иннополис готов предлагать иннов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индустриальным компани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 примеру, эксперты вуза создали уникальную в России технологию контроля сварочных швов при помощ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Университет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внедрять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и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 Университет Иннополис определен Минпромторгом центром промышленной робототехники России. Вуз разрабатывает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е ячейки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 например, для упаковки молока и яиц. При этом внедрять эти модул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можно при господдержк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площадка, которая сформирована на базе НПЦ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позволит частично локализов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х ячеек. Клиентами таких услуг могли бы стать предприятия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а, но и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Также Университет Иннополис предложил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е алгоритмы обработки медицинских изображений, собственные решения в обла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ял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Эстафету Победы»,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вдоль границ стран СНГ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няла «Эстафету Победы», приуроченную к 80-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В церемонии передачи симво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акции - пограничного столба -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Эстафета проходит вдоль внешних границ девяти государств СНГ по двум маршрутам: южному - от Брестской крепости, и северному. Старт северному маршруту был дан 2 февраля в Мурманске. Акция проводи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ФСБ России, ее цель

— напомнить о подвиге воинов-пограничников, которые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ервыми встретили немецко-фашист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 В этом году мы отмечаем юбилей - 80 лет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и со дня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Мы должны помнить, что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а героически поставлена точка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советские воины перешли 50-ю параллель и штурмом взяли полицейский пост Хандас, а также высадились на остров Шумшу, где разгромили японских завоевателей. Любые символы, такие, как «Эстафета Победы», сегодня важны. Они напоминают нам о величии нашей Родины, крепости нашей армии, а всему остальному миру, что мы - великая независимая держава. Чувство гордости за Отечество, уважение к героям мы должны передать нашим детям и внукам. Мы живем в приграничном регионе и понимаем важность защиты рубежей. Хочу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огранич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за эффективную работу: благодаря вам мы всегда знаем, что граница на замке,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собран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Два месяца нас отделяет от празднования 80-лет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В обстановке политическ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 мире и попытках отде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 переписать историю этот праздник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ую роль в сохранении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памяти о подвиге, совершенном советским народом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Сегодня мы принимаем эстафету от сотрудников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по Восточному арктическому району как символ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ерушимой и великой границы. Основная цель эстафеты - укрепление единства и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вшейся дружбы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СНГ, сохранение памяти о героической борьбе наших стран против фашизма.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мае у нас еще одна юбилейная дата - Погранич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полнится ровно 100 лет. Наше погранич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лавится боевыми и мирными подвигами. Сегодня мы с честью выполняем задачи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храняем границу и богатства наших морей. Так будет и впредь, - 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Ювченко.

В рамках торжественной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акции ее участники возложили цветы у мемориала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На Сахалине символ эстафеты прибыл с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эстафета прошла через Архангельск, Нарьян-Мар, Сабетту, Салехард, Дудинку, Анадырь, архипелаг Земля Франца-Иосиф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символ эстафеты также встретят в городах Невельск, Холмск, Поронайск, Корсаков, пгт. Смирных, селе Озерском, селе Головинно и островах малой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Шикотан, Зеленый и Танфильева. В каждом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в рамках акции пройдут торжественные 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сотруднико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молодежи и ветера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ледующим пунктом маршрута «Эстафеты Победы» станет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Акция завершится 28 мая в день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ФСБ России в Москве. Общая длина маршрутов эстафеты превысит 65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В год 80-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ах и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на Сахалин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ажные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Одними из важнейших стану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и открытие музея боевой славы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Увековечить память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поруч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аботы находятся на контрол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в ДФО Юрия Трутнева. В день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а, 18 августа, на Шумшу состои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памятных событий с участие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Клубы 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России» 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портивному триатлону «Высота 171».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лета на Курилах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Дорогами острова Шумшу». К Дню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3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будут приурочены еще две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х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 Холмске повторят события штурма укрепленного района на Камышовом перевале,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 штурм полицейского поста Хандас. В селе Рошино к этой дате откроют музе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наступ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 Председатель Федерации независимых профсоюзов России Сергей Черногаев высоко оценил усилия по защите прав трудящих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ё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Федерации независимых профсоюзов России (ФНПР) Сергеем Черногаевым. В ходе диалога обсуждались итоги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и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 Социальное партнёрство - это мост между интересами бизнеса, работников и государства. Для нас прин-

ципально важно, чтобы в фокусе трё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ежде всего были интересы работников. Именно их потребности - будь то условия труда или со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 определяют наши приоритет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отметили на встрече, важнейшим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трудовых отношений в регионе является областное трехстороннее соглашение, которое заключается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25 лет. Одна из важнейших гарантий - закрепление «Северных гарантий» после разграничения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источников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Благодаря соглашению работникам региона гарантированы повышенный район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1,8; 1,6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йона), льготный порядок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оцентной надбавки молодежи.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единственн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гион, закрепивший такие гарантии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актом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соглашение также включены и новые положения: внедрение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корпоративных программ по укреплению здоровья работников, сохранение среднего заработка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на время пути до лечеб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дл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гарантии участникам СВО и членам их семей.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ь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на всех его уровнях. Отраслевые соглашения действуют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й бюджетной сфере, а также в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м,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рыбной 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ях, автомобильном транспорте.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ой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офсоюзн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регионе не регистрировались коллективные трудовые споры.

## Эксперты гастроиндустрии устроили мозговой штурм на Сахали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форсайт-сессия «Подни-ми волну. Сахалин»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оЕДУ по Ро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асштаб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едущие эксперты гастроиндустрии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шеф-повара, рестораторы,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маркетинговому продвижению. Спикеры с опытом создания проект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поделились знаниям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го бизнеса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рамках форсайт-сессии участники разработали проекты по созданию событийного гастрокалендаря, продвижению бренда «Сахалин - знак качества»,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ресторанного менеджмента, подготовк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для сферы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Участие в защите проектов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 туристическ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й регион. С каждым годом поток гостей на острова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о итога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у нас побывали 2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и мира. Это стимулирует бизнес открывать новые гостиницы и рестораны,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сервиса, улучшать туристическ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Мы развиваем сферу туризма не только для гостей, но и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комфортную среду для жизни и качественный сервис,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частники сессии предложили наполнить год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ми событиями - к примеру, провести большой пикник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и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Сахалинский ресторатор Мария Федотова выдвинула концепцию островного завтрака, который должен стать таким же узнаваемым, как континентальный или английский. В рамках продвиж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ренда «Сахалин - знак качества»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работать «Меню Сахалина» для ресторанов, включить лучшие заведения в гостевые маршруты, развернуть площадку «Свое Родное».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проектов станет проект «ГастроОстрова» -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открывающий миру код уникальной островной кухни. Форум объединит разные форматы - как деловые, так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е ужины и фестив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нтенсивы.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также проект консьерж-службы, которая будет помогать туристам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ровести отдых на Сахалине от А до Я. Не остался без внимания и кадровый вопрос. На защиту выдвинули модель «ТОП-кадры регион», которая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профориентацию школьников, непрерывное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и повышение имиджа профессий в сфере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Фокус обучения будет сосредоточен на реальных практиках: часть занятий студенты пройду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ресторанах, а лекции и обучение основам професси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в том числе сами рестораторы.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ектов участников форсайт-сессии открыла двери к их реал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ервым пилотным регионом программы АСИ по развитию гастроиндустрии. Подписа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директором АСИ Светланой Чупшевой открывает для области доступ к масштабным проектам, где гастроиндустрия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청-코트라,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 위해 힘 모은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코트라(사장 강경성)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상덕 청장은 코트라를 방문하여 강 사장에게 4월 17~20일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바이어 유치 등 코트라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 세계 한민족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즈니스의 장(場)인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소개하는 기업전시회(450여개 부스 설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청장은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한상경제권 구축 원

년을 선포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상경제권'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상경제권 : 동포기업인·상공인으로 형성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대한민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인식해 동 경제권에서 생산·소비·교역·투자·인력이동·공급망 구축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불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개념.

이에 강경성 사장은 "코트라도 이번 대회에 코트라 전시부스 참여, 바이어 유치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며, 동포청의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 Biz), 수출 지원 사업을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 고품격 관광도시 서울,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에서 알린다

서울시가 고품격 관광도시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프리미엄 관광 커뮤니티(Connections Luxury)와 손을 맞잡고 럭셔리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나선다.

최근 나만의 특별한 여행 경험을 찾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럭셔리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소비력이 높은 세계 럭셔리 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하여 '3·3·7·7 관광 시대\*'를 적기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3.3.7.7 서울관광: ('26년까지) 외래관광객 3천만명, 1인당 지출액 3백만 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 서울시는 해외 바이어를 서울로 초청해 '고품격 관광지 서울'을 알리는 국제 고급관광 비즈니스 상담회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5'를 오는 6월에 개최하며 행사에 참여할 국내 판매자(셀러)를 3월 5일(수)부터 14일(금) 17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에서는 전 세계 40여 개 해외 구매자(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B2B)과 서울 관광상품 문화체험, 관광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행사에는 주요 럭셔리 관광시장인 구미주와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 40여 개 해외 바이어가 참여할 예정이다.

작년 행사에서는 15개국 30개의 엄선된 럭셔리 해외 바이어와 국내외 30개 여행사가 참여해 비즈니스 상담(B2B) 402건이 성사되었다. 또한 ▲한복 체험(아름지기재단), ▲고추장만들기(바른먹거리), ▲K-뷰티 퍼스널컬러(블레스미) 등 다양한 관광상품 문화체험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참여 예정인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국제 럭셔리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고 소비력이 높은 고객을 보

유하고 있는 '프리미엄 여행자'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행사가 국내 판매자(셀러)에게 해외 프리미엄 여행사와 긴밀한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는 5일(수)부터 14일(금) 17시까지 서울시(또는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국내 프리미엄 관광 전문 인바운드여행사(DMC)와 호텔(5성급 이상, 전동호텔)·체험·운송 등 분야별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제공사다.

국내 판매자(셀러)로 선정되면 ▲글로벌 럭셔리 관광시장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1:1, 그룹)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 ▲국내 프리미엄 관광업계 네트워킹 ▲미디어 홍보 기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방과 상생하는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서울 소재 기업으로 제한하였던 국내 판매자(셀러) 참가 자격을 올해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숙박·체험 등 각종 분야별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다각도로 발굴해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다변화하는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서울이 고품격 관광 목적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국적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가 고부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숙박, 미식, 전통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보유한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에서 더 많은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광업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 항공기 탑승시 보조배터리는 꼭 투명 비닐백에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 100wh(5v 기준, 2만mA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100wh(2만mAh) ~ 160wh(3.2만mA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기내반입이 금지된다."

3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에는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여객의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3월1일 여행객들에게 신규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절차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사 이학재 사장 및 경영진이 참여해 여객들에게 신규 절차 안내문과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배부하였다.

이날 캠페인 외에도 공사는 대중교통, 공항 접근도로, 여객터미널 출입문, 체크인카운터, 출국장 진입로 등 출국동선 전 구간에 안내문구를 표출하는 등 신규 절차의 사전 안내를 강화하였다. 또한 많은 여객이 예상되는 3·1절 연휴 기간(3.1~3) 중 신규 절차가 시행되는 만큼, 안내인력 추가배치, 출국수속시설 최대운영 등 혼잡완화조치를 전면 시행해 현장혼선 및 공항 혼잡상황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여객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공사는 신규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및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 [기고] 삼일절과 미래의 한러관계

박종권 러시아 겨레일보 대표(발행인)

오래전 모스크바 한국대사관에 서 개최된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한 한 사할린 동포는 "일본군이 총칼을 들고 집안에 쳐들어 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 오늘 이렇게 국가에서 삼일절 행사를 치르고 초청을 해주니 감격스럽다"며 겨레일보에 소감을 밝혔다.

러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외침에 시달려 왔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당연히 있었다. 그 저항의 역사로 오늘날 러시아가 존재한다. 러시아는 이를 기념하는 지하철역도 최근에 생겼다. 2021년 4월 1일 문을 연 '민병대'라는 이름의 모스크바 지하철역에는 세 시기의 역사적 저항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1612년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병대가 폴란드-리투아니아 점령군으로부터 모스크바를 해방한 순간이다. 그 다음으로 1812년 나폴레옹과의 전쟁 당시로 나폴레옹 군대가 내륙으로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된 민병대이고 마지막으로는 1941-1945년의 나치 독일과 싸운 전쟁의 순간의 민병대 활약의 순간이다.

한국도 외세의 침략이 한창인 19세기 말 민중의 저항은 강력했다. 동학혁명은 '척양척왜'와 '보국안민'을 내세워 외세와 맞섰고, 동시에 '제폭구민' 기치로 폭정을 없애기 위해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학군은 조선정부가 불러들인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 그리고 이들이 무장한 현대식 무기에 의해 학살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는 조선 망국을 앞당겼다.

결국 조선은 망하고 일제시대 1919년 삼일운동을 주도한 33명의 인물에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 인사가 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참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삼일운동은 이러한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 인사들의 주도로 일어났다. '민족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세계 역사상 초유의 종교 연대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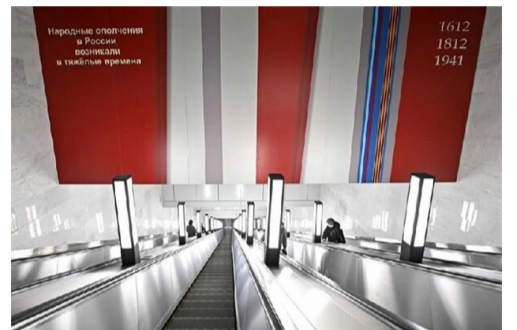
삼일운동은 일본의 주권 침탈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를 극복하고 민중의 힘으로 대한독립을 정신적으로 확보해 내었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 이로써 삼일운동은 '민'으로서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만방에 보여주었으며 대한 '제국'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소멸된 것이 아닌 다시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삼일운동이 언급된 이유이다.

모스크바에서 삼일절 행사는 1996년 77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기독교 선교사 이형근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당시는 그 누구도 삼일절에 대해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않

았던 때였다. 그는 행사 개최 취지가 고려인들이 스스로 우리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후손들이라는 것을 자각시키고 금지도



박종권 러시아 겨레일보 대표



러시아도 수많은 외침에 시달려 왔다. 이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 당연히 있었다. 그 저항의 역사 순간들이 2021년 4월 1일 문을 연 '민병대'(나로드느예 아폴체니야)라는 이름의 지하철역(사진)에 기록되어 있다. 지하철역에 걸린 이미지에 어려운 시기에 의병이 일어난 사실(왼쪽 문구)과 역사적 시기(오른쪽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이 봉기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전국의 90개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흰색의 기둥은 무명옷을 입은 농민군과 혁명의 순수성을 상징한다.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농민혁명공원 내 '울림의 기둥'.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들이 동학의 현장을 탐사하고 있다.

[제공= 겨레일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일문화원이라는 단체도 만들어 러시아내에서 민간차원에서 삼일절의 의의를 알리는 일을 공식적으로 해오고 있다. 80주년 맞아서는 삼일절 기념 학술대회까지 가졌다. 2005년도부터 삼일절 행사는 모스크바 한국대사관에서 오늘날까지 매년 치러졌다. 대사관행사는 때때로 특별한 일정으로 유공자 포상, 재외동포 우수대학생 장학증서 전달 등을 해왔다.

이제는 민간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저항운동과 관련해 한러 민간 교류 차원에서 삼일절 행사를 가져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동학은 후천개벽을 노래한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라는 깨달음으로 마음에 영원한 평화를 만들었다. 그 힘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 힘으로 남북한 통일의 길도 열어야 한다. 러시아가 몽골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데에도 러시아정교의 힘이 결정적 역할을 했듯이 미래의 밝은 한러관계도 동양의 새로운 '개벽사상'이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다.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Telegram-канал «На передовой памяти»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2025 года.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80-й годовщине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ю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оторая отмечается 3 сентября и име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всей области.

Горожане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могут поделиться историями своих близких, чьи судьбы связаны с событиям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то жил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и внес свой вклад в Великую Победу и послевоенное возрождение страны. На почту [press@yuzhno-sakh.ru](mailto:press@yuzhno-sakh.ru) принимаются любые медиафайлы, включая фотографии, сканы фронтовых писем, аудиозаписи воспоминаний участников и свидетелей событий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Первая история — о Леонтии Иоелевиче Браславском — ветеране, почетном жите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авалере ордена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2-й степени, награжденном медалями «За Победу над Германией», «За Победу над Японией» и другими наградами.

С важными моментами биографии нашего героя,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о его службе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в Telegram-канале.

## '고스우슬루기' 사이트에서 대출 자동차단 작동

고스우슬루기(국가서비스) 사이트에서 대출 및 융자 자동차단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작동시키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시도하려는 사기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게 한다. 이 서비스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개인 신용기록에 신청서 제출 후 대출차단이 시작된 날짜와 함께 특별 기호가 떠오르면 은행과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신용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기호를 보고 대출이나 융자를 거부하게 된다.

모든 고객이 대출이나 융자에 차단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제한적 차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출의 원격방식만 차단하고, 은행이나 소규모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받을 기회는 남겨둘 수 있다.

대출 자동차단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 교육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및 기존 대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 자동차단 조치는 언제든지 고스우슬루기를 통해서도 해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스클루츠' 앱에서 작성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제 시 신용거래 기록 변경이 도입되는 2일째 되는 날 대출 자동차단서비스는 중지된다.

필요 시 다시 대출 자동차단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다.

## Самозапрет на кредиты заработал на Госуслугах

На Госуслугах заработал новый сервис – самозапрет на выдачу кредитов и займов. Он позволяет гражданам защитить себя от мошенник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пытаться оформить кредит на чужое имя.

Принцип работы сервиса прост: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в кредитной истории человека появляется специальная отметка с датой начала действия запрета. Банки и микрофинансо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МФО), проверяя кредитную историю, увидят эту отметку и должны будут отказать в выдаче кредита или займа.

Запрет 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на вс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кредиты и займы, либо выбрать отдель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пример, можно запретить только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формление кредитов, оставив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кредит при личном визите в банк или МФО.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самозапрет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ипотеку,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и автокредиты, а также на уже действующие кредитные договоры.

Снять запрет можно в любой момент, также через Госуслуги. Для этого потребуется электронная подпись, которую можно создать в приложении «Госключ». Самозапрет перестан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второй календарный день после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кредитную историю.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запрет 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снова.

## 초콜릿코팅 딸기 판매, 5배 증가

'아워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3월 8일 선물로 남성들이 선택하는 물품들을 분석한 가운데 초콜릿으로 코팅한 딸기가 히트상품으로 판매되면서 매출이 5배나 올랐다.

초콜릿코팅 딸기 외에도 마시멜로나 견과류, 사탕, 치즈, 해물, 소시지 등으로 꾸며진 부케가 자주 팔리고 있어 이런 류의 선물 판매 증가율은 83%에 달했다.

남성들은 더 자주 전자기기를 구매하여 대도시에서는 태블릿과 전자책 판매율이 7% 증가, 컴퓨터, 휴대전화의 판매율은 5% 증가했다.

미와 건강을 위한 선물 역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2월 초에는 아워토에서 여성용 가방의 판매가 증가했고, 화장품 세트 구매 빈도는 11% 증가했으며, 고가의 헤어드라이기와 유명 브랜드의 미용기기는 압도적 히트판매 상품으로서 구매 빈도가 56%나 증가했다.

## Продажи клубники в шоколаде выросли в пять раз

Специалисты Авито провели аналитику товаров, которые выбирают мужчины в качестве подарка к 8 марта. Так, хитом продаж стала клубника в шоколаде – ее стали покупать в 5 раз чаще.

Кроме клубники в шоколаде также часто покупают съедобные букеты, в состав которых входят зефир, орехи, конфеты или сыр, морепродукты и колбасы. Рост продаж на данную категорию товара составил 83%.

Также часто мужчины стали покупать технику. В макрорегионе на 7% возросли продажи планшетов и электронных книг, а компьютеров и телефонов – на 5%.

В топе остаются и подарки для красоты и здоровья. Так в начале февраля на Авито подросли продажи женских сумок. Наборы косметики стали покупать на 11% чаще, а дорогие фены и стайлеры от известного бренда стали абсолютным хитом продаж – их стали покупать чаще на 56%.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